

美연방정부 ‘셋다운’ 돌입... 일부 기능 정지

〈부분 업무정지〉

민주·공화, 오바마케어 공방 예산안 처리시한 넘겨 연방 공무원 200만명 중 80만~120만명 ‘일시 해고’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케어(건강보험 개혁안) 존폐 문제로 씨름을 벌이다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셋다운(부분 업무정지) 상황에 돌입했다.

미국이 셋다운 사태로 치달은 것은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1995년 이후 17년 만이다.

미국 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하면서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은 1일 오전 0시 1분부터 정지됐다.

1일부터 개시되는 새 회계연도의 예산안 단 한 톨도 확보하지 못한채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은 정치권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연방 공무원 가운데 필수 인력을 제외한 80만~120만명의 직원을 당장 ‘일시해고’해야 한다.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 프로그램도 중단된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최근 정부의 일시 폐쇄에 대비해 ‘핵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각 정부 부처에 보냈다.

이에 따르면 군인·경찰·소방·교정·기상예보·우편·항공·전기 및 수도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필수 인력이고 이들의 업무가 핵심 서비스다. 이들 공무원은 업무는 계속하지만, 보수는 예산안이 의결돼야 소급 지급된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또 반대편에 선 공화당은 한동안 셋다운에 대한 책임 공방을 벌이고 나서 셋다운을 조기 종료하기 위한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미국 정치권은 시리아에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군사 개입 승인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다 시리아 문제가 외교적 해결로 가다를 잡자 예산 전장에 돌입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지난달 20일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핵심 정책이자 최대 업적인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 항목을 전면 삭제한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기면서 예산안 처리에 난항을 예고했다.

상원은 하원이 보낸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 관련 지출을 되살릴 수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돌려보냈고, 하원이 다시 오바마케어 시행의 1년 유예를 포함한 예산안을 통

과시켜 상원으로 넘기는 등 열흘간 지루한 팽팽 게임이 이뤄졌다. 결국, 미국 정치권은 협상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당리당략에 따라 행동하느라 정부 셋다운이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국민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치권은 셋다운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만간 예산안에 합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현행 16조7000억달러인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협상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이달 17일이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나기 때문에 채무 상환을 다시 울리지 않으면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인해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질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 부채 현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반면 공화당은 이 문제 또한 오바마케어와 연계한다는 방침에서 협상 타결을 이루기를 어려워 것으로 점쳐진다.



한승원 칼럼

박근혜 정부가 역대의 다른 정부처럼 어김없이 교육정책에 손을 대고 있다. 고등학생들의 수학능력 시험과목에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넣으려 하고, 고등학교에 들어간 학생들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지 않고, 모든 학생들에게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다 가르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사교육이 무섭게 꿈틀거리기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오래 전부터 고등학교 학생들을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어 가르침으로써 한쪽은 인문학의 바보로 만들고, 다른 한쪽은 자연과학의 바보로 만들었다. 많은 세계의 깨어 있는 석학들은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은 서로 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인이나 소설가나 음악가나 화가나 영화연극 예술인들이나 철학자나 역사학자나 관사나 검사, 정치가들도 자연과학을 알아야 한다. 역시, 의사나 과학자들이나 기업가들이나 전자

있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나는 극우도 극좌도 아닌 중도적인 시각으로 역사교과서를 저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도는 회색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긍정적인 중용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의 지식인 몇몇이 내선일체를 합리화하고, 박정희 정부시절,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던 철학자와 역사학자들이 유신독재를 합리화시킨 것을 경한 바 있다. 그 장본인이나 후예들이 지금도 활개를 치고 있다.

나는 한국의 역사교과서가 올바른 세계사관 속에서 민족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채 통일을 지향하는 희망 있는 철학을 담아 기술되기를 희망한다.

우리 역사교과서는, 중국을 업고 삼국을 통일한 신라 중심의 역사, 그로 인해 고구려 영토를 모두 중국에게 바친 슬픈 역사, 중국에게 짓밟히

정희곤 광주시의원 “시교육감 선거 출마”



전교조 출신으로 진보 진영의 유력한 후보군 중 한 명인 정희곤(사진) 광주시의원 교육의원이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사실상 선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좋은 교육감’을 뽑는 경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장휘국 현 교육감의 재추대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정 의원은 1일 기자들을 만나 “내년 광주시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며 “이달 말께 공식 출마 선언을 하고, 연말께(자신의) 교육철학이 담긴 책을 출간해 출판기념회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같은 전교조 출신인 장 교육감의 지난 3년을 두고 “실망스럽다”고 혹평했다. 그는 “장 교육감이 시민후보로 추대돼 당선됐지만 모든 면에서 너무 기대에 못 미쳐 이대로 선거를 치르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며 “전교조를 포함한 범시민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일후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거리 미사일 ‘현무-III’ 등 최신 무기 첫 공개 건군 제65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1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시가행진에서 ‘현무 II’와 ‘현무 III’가 시민들 앞을 지나가고 있다. 현무는 적 후방에 위치한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사거리 300km 이상인 현무 II와 사거리 1천km 이상인 현무 III는 이번엔 처음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는 2003년 이후 최대 규모의 병력과 장비가 참여했다.

“킬체인·KAMD 조기 확보, 北核 대응”

〈정보·감시·타격 시스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차대통령,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서 강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행사가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렸다.

지난 2003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규모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병력 1만1000여명과 지상 장비 190여대, 항공기 120여대 등 최신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식전행사와 기념식, 분열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북한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는 탄도미사일 ‘현무-II’(사거리 300km)와 장거리 순항

미사일 ‘현무-III’(사거리 1000km), 해안포 부대 타격용 ‘스파이크 마사일’(사거리 20여km) 등이 처음 공개됐다.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우리를 둘러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북한은 핵개발을 고집하면서 점점 더 고도화시켜가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때까지 강력한 대북억지

력을 구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또 “저는 군대의 진정한 존재가치는 전쟁을 하는데 있는 게 아니라 전쟁을 막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대통령은 “정부는 강력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유지하면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등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확보, 북한 정권이 집착하는 핵과 미사일이 더 이상 쓸모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하여

업계로 진출하는 사람들도 인문과학을 알아야 한다.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은 서로 융합하여 상승작용을 해야 더 바람직한 인류의 삶을 향기롭게 도출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을 나누어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서려 하는 것은 다행이다.

한국사를 선택과목으로 하는 바람에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사 무식쟁이가 되어 있다. 나의 사전에는 ‘역사를 읽는 자는 깨어 있게 되고, 깨어 있는 자는 역사를 읽는다’고 적혀 있다.

한국사를 수능의 필수과목으로 넣는 데에는 몇 가지 우려 되는 문제가 있다.

한국사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민족의 분단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서 그 끝은 아주 깊게 패어 있다. 하나는 극우적인 보수 시각이고, 다른 하나는 극좌적인 진보의 시각이다.

극우적인 시각은 분단을 고착화시키고, 역대의 독재정권을 합리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극좌적인 시각은 나라의 정체성을 흔들어 놓을 수

고 중국을 숭모하며 살아온 고려조와 조선조의 역사, 일본에게 유린당한 칠년 전쟁의 역사, 부패한 나라를 바꾸려고 일어난 동학민중들을 섬멸하고 36년 간 한반도를 강점하고 모든 것을 착취해간 일본 민행의 역사, 지누어 가르치지 않겠다고 나서려 하는 것은 다행이다.

해방 이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분단 상태에서 일어난 한국전쟁의 역사, 이승만 독재에 저항한 4.19학생의거, 이후 군사쿠데타로 인해 성립된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투사들의 저항과 박정희 사후 전두환 군사정권에 항거한 5.18 광주민중항쟁, 그로 인해 찾게 된 지금의 민주주의,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통일 노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교과서는 미래지향적으로 서술되어야 한다.

부디 한반도의 분단 상황 속에서 자라는 우리 후세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한국사가 올바른 민족의 정체성과 세계사관 속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희망 있는 학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란다.

〈소설가〉

사정상 “급매”

순천법원 정문, 농협 뒷 건물

- ▶ 대지148평, 건물 480평, 신축건물
- ▶ 5층 건물(1층 82평, 2~5층 각 100평)
- ▶ 감정가/시세 - 23억원
- ▶ 임 대 - 보증금 3억원에 월 1,400만원 예상(임대중)
- ▶ 대 출 - 14억원(이자 월 560만원)
- ▶ 매매가 - 22억원
- ▶ 수 입 - 5억원 투자에 월 840만원

문의(주인직매) 010-3605-5000

경매 투자

경매 비법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을 모십니다.

단독/공동투자 가능하고 NPL과 특수물건만 전문 취급하고 등기 또는 근저당으로 법적 보장합니다.

투자금은 최소 1억원 이상이고 투자기간은 1년 정도이고 수익률은 년 20% 이상입니다.

단, 상담 후 본사가 결정합니다.

주식회사 오천경매 최 선규 드림
문의 : 010-3605-5000

오천경매 대부

광주 동구 제029호
(동구청 경제과 062-608-2504)
월3.25%이하, 연39%이하
(연체 및 추가비용 없음)
광주 동구 천변우로 339-2001호

돈

놀분/쓸분!

문의
010-3605-5000